

린드블럼 2연패 vs 양현종 4년만의 탈환...치열한 ERA 경쟁

양현종, 평균자책점 2.29로 '1위' 유지한 채 시즌 마감

시즌 초 엄청난 부진 5월부터 반등해 훌륭한 성적표 받아

린드블럼 2경기 정도 등판 남아...2연패 선동열 이후 28년만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4년만에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노린다. 두산 베어스 조쉬 린드블럼은 2연패에 도전한다.

양현종과 린드블럼의 평균자책점 경쟁이 치열하다. 린드블럼이 오랫동안 지켜온 1위 자리를 최근 양현종이 빼앗았다. 양현종은 시즌 마지막 등판을 마친 상황. 타이틀의 향방은 린드블럼의 남은 등판 결과에 달렸다.

양현종은 지난 17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NC 다이노스와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3피안타(1피홈런) 3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1회초 양의지

에게 선제 투런포를 허용한 뒤 추가 실점을 허락하지 않아 팀의 3-2 역전승에 발판을 놔다.

이날 양현종의 투구수는 65개에 불과했다. 충분히 6~7회 등판이 가능했지만 양현종은 마운드를 동료 투수들에게 넘겼다. 경기 전 계획된 일이었다. 이로써 양현종은 16승(2완봉승) 8패 평균자책점 2.29(18.4%이닝 47자책)를 기록하며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초반 엄청난 부진을 극복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값을 확실히 해낸 양현종이다. 4월까지 6경기 등판한 양현종의 성적은 5패 평균자책점 8.01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반등해 훌륭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점대였던 평균자책점은 점차 낮아져 2점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1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따내면서 평균자책점을 2.25까지 끌어내려 이 부문 1위를 넘겼다.

그러자 린드블럼이 16일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7⅓이닝 6실점 2.29(18.4%이닝 47자책)를 기록하며 올 시즌을 마무리했다. 시즌 초반 엄청난 부진을 극복하며 결국에는 자신의 이름값을 확실히 해낸 양현종이다. 4월까지 6경기 등판한 양현종의 성적은 5패 평균자책점 8.01이었다. 그러나 5월부터 반등해 훌륭한 시즌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점대였던 평균자책점은 점차 낮아져 2점대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11일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시즌 두 번째 완봉승을 따내면서 평균자책점을 2.25까지 끌어내려 이 부문 1위를 넘겼다.

복한 놀라운 반전으로 4년만에 타이틀 탈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그러나 아직 양현종의 평균자책점 1위는 확실치 않다. 린드블럼에게 아직 2경기 정도 더 등판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린드블럼이 남은 경기에서 잘 던진다면 충분히 재역전이 가능하다.

린드블럼은 지난해 2.88로 평균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한 바 있다. 올해 린드블럼이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선동열(1985~1991년·7연패) 이후 28년만에 평균자책점 타이틀 2연패가 탄생한다.

린드블럼은 날짜상으로 오는 21일 KIA와 홈 경기에 등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된다. KIA 동료들이 린드블럼을 공략한다면 양현종의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아진다.

린드블럼이 다음 등판에서 5⅓이닝 이상을 자책점없이 막으면 1위 자리를 탈환할 수 있다. 1자책



KIA 타이거즈 양현종(왼쪽)과 두산 베어스 조쉬 린드블럼

점을 기록할 경우 9이닝 완투를 당장은 양현종이 1위를 지키기 유력하다. 린드블럼은 2경기 정도 등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흥미로운 상황이 연출된다. KIA 동료들이 린드블럼을 공략한다면 양현종의 타이틀 획득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천에 새 훈련장 마련한 한국 썰매...“다시 희망 생겼다”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실내스타트훈련장 개장식



봅슬레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18일 오전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실내스타트 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훈련장이 사라진 한국 썰매 대표팀에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다. 봅슬레이·스켈레톤·루지 국가대표팀은 18일 충북 진천선수촌

에서 실내스타트훈련장 개장식을 열고 새로운 훈련장을 공개했다. 지난 7월 착공한 훈련장은 선수들의 테스트를 거쳐 2개월여 만에 완공됐다. 훈련장에 들인 예산 규

모는 약 1억3000만원이다.

길이 70m, 폭 77cm 규모로 설계된 훈련장에선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세 종목용 동시에 훈련할 수 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 베이징 썰매 경기장과 유사한 구조로 평지에 트랙이 마련된 것이 특징이다.

평창에 있던 기존 훈련장에서 스타트 전체 기록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새 훈련장에선 5m 구간마다 세부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도 도입됐다.

대표팀을 이끄는 이용 총감독은 “세 종목용 동시에 훈련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세계 최초”라며 “다 침내 내가 살 집을 마련한 느낌이다”라며 기뻐했다.

한국은 지난해 평창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쾌거를 올리며 한국 썰매 종목의 희망을 키웠다.

윤성빈(강원도청)은 한국 최초로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땀고 원윤종(강원도청)을 필두로 한 봅슬레이 대표팀은 4인승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올림픽 이후 인프라 구축이나 재정적 지원이 따를 것이란 대표팀의 기대와 달리 대표팀은 ‘홈 트랙’마저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평창알펜시아슬라이딩 센터와 실내 스타트 훈련은 시설 유지·관리비용 등 사후 활용 방안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 잠정적으로 폐쇄됐다. 평창에 있던 야외 훈련장마저 시설 노후화로 재보수 공사에 들어가 대표팀이 연습할 수 있는 훈련장은 아예 사라졌다.

이용 감독은 “훈련장이 없을 땐 한국 썰매의 희망이 사라진 듯했는데 이제 다시 희망이 생겼다”며 “그래서 이 훈련장이 더 의미가 있다. 봅슬레이의 꺼진 불씨를 살리는 하나의 장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치용 선수촌장, 강신성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 경기연맹 회장,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 등이 참석해 선수들에게 격려의 인사를 남겼다.

신촌장은 “좋은 훈련장을 갖는다는 것은 선수들에게 큰 복”이라며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

21일 순천시 개막...남자부 29일부터



한국배구연맹이 주관하는 공식 프로배구대회인 ‘2019 MG새마을금고컵 프로배구대회’가 전남 순천에서 열린다.

지나해는 충북 제천시와 충남 보령시에서 각각 남녀 프로배구대회가 분리해 열렸으나 올해는 순천시에서 남녀프로팀을 통합해 여자부 경기는 21일부터 28일까지, 이어 남자부경기는 29일부터 10월 6일까지 순천팔마체육관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이나 중부지방에 주로 집중됐던 KOVO컵대회가 광주·전남 최초로 순천시에서 개최되면서 지역 배구팬들의 관심과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대회는 기존 V리그 13개

구단과 실업팀 3팀(수원시청·양산시청·국군체육부대)이 참가해 총 16개 팀이 경기를 치른다.

대회는 21일 오후 2시 ‘2018 보령·한국도로공사컵 프로배구대회’ 우승팀인 KGC인삼공사와 도드람 2018-2019 V리그 통합우승팀인 흥국생명팀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6일간 진행된다.

여자부 A조는 KGC인삼공사,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수원시청이, B조는 GS칼텍스, 현대건설, 한국도로공사, 양산시청으로 조별 예선을 치르게 되며, 남자부 A조는 삼성화재,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OK저축은행이, B조는 KB손해보험, 우리카드, 한국전력, 국군체육부대가 예선 경기를 진행하게 된다.

티켓 예매는 한국배구연맹 통합 티켓 예매처에서 온라인 판매가 시작되며 현장예매는 경기시작 3시간 전 부터 구입가능하다.

순천=김승호 기자

설림화순 버스투어 2019. 3. 23(토)~11. 24(일) 매주 수, 토, 일요일

코스
 동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화순적벽→임대정원림→연둔숲정미→김삿갓동산→오지호 기념관 및 생가→화순읍
 서부권 화순읍(이용대체육관 앞)→운주사→조광조유배지→고인돌유적지→화순적벽→화순읍

예약
 설림화순 버스투어 홈페이지 <http://tour.hwasun.go.kr>
현지탐승
 이서커뮤니티센터, 미 예약 방문객 현장 선착순(1대)

- 임대정원림
- 연둔숲정미
- 김삿갓동산
- 오지호 기념관
- 조광조유배지
- 고인돌유적지
- 운주사